

“甲의 횡포 더는 못참는다” 반격 나선 乙

유통상인연합, 이달말 공정위에 20여 업체 신고키로

광주 택배기사들, 대기업에 수수료·패널티 개선 촉구

남양유업의 제품 강매 과문으로 촉발된 ‘갑의 횡포’ 논란이 식을 줄 모르고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중소상인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들은 해당업체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불공정행위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8일 우월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등의 혐의로 이달 말 20여개 업체를 공정위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참여연대,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등의 단체들도 합세할 예정이다.

이러한 강공은 남양유업 과문을 계기로 그동안 업계에 관행으로 자리잡았던 ‘갑을 강박관계’를 이번 기회에 완전 뿐리 뽑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 연합회 측 설명이다.

실제 남양유업의 ‘강매(밀어내

기)’, ‘떡값·리베이트’, ‘막말 논란’ 등이 비단 한 회사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게 업계 내부 분위기다.

연합회는 조사 대상으로 식품업체인 S그룹과 N사를 대표적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L음료와 L푸드 등 20여개 업체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밀어내기”와 ‘떡값’ 외에도 본사의 대리점 영업권 부당 침해에 대해서도 정식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본사가 대리점과 지역총판 독점계약을 맺은 뒤 해당 지역의 상권이 커지면 그 주변에 직영점을 속속 개설, 대형마트 등에 제품을 직접 납품하는 식의 편법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밀어내기와 떡값 요구는 남양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횡행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 업체들의 횡포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남양유업 과문은 시민단체들의 대대적인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견접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현대판 지주·소작제’로 비유되며 누구 보다도 ‘갑의 횡포’에 분노하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진 편의점 점주들은 적극적으로 나서 불매운동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는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남양유업의 폭언과 제품 강매(밀어내기)는

비인정적이고 야만적인 행태”라며 대국민 사과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갑(남양)들의 처사는 지금까지 읊(중소상인)에 해온 것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이번 기회에 이 같은 폐단을 공론화해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지역 택배 기사(을의 입장)들도 이른바 ‘수퍼 갑’인 CJ대한통운에 맞서 수수료 삭감과 과도한 벌칙(페널티) 적용에 반기를 들고 7일부터 불공정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3대 편의점 “남양제품 안 받겠다”

불매운동 확산… CU·GS25·세븐일레븐 가세

남양유업 제품 불매 운동이 3대 편의점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유업계의 ‘밀어내기’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8일 편의점 CU·GS25·세븐일레븐 점주 단체 연합회인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이하 전편협)는 공식 성명을 내고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원수가 1만5000여명에 달하는 전편협이 불매운동을 공식 선언한 만큼 남양유업이 받을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세븐일레븐의 점주 협의체 2개 중 하나인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는 하루 먼저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날 시장감시국 등에서

3개팀을 구성, 서울우유와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를 업체의 대리점 관리 현황을 비롯해 마케팅과 영업 관련 자료에 대해 이틀가량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의 시발이 된 남양유업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한 3개사 이외에 전체 유업계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남양유업 주가는 2일 이후 거래 5일 동안 15% 가까이 하락, 100만원 아래로 떨어지며 ‘황제주’ 자리에서 내려왔으며 대형마트에서는 최근 3일간 제품 매출도 적잖이 줄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7강

‘음악평론가’ 장일범씨 강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7번째 강좌가 7일 광주시 상무지구 라마다호텔 3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클래식 전도사’ 장일범(KBS 클래식FM ‘장일범의 가정음악’ DJ)씨가 ‘세계 클래식 음악의 트렌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관련기사 18면〉

장씨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과 함께 전 세계 클래식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빈 신년음악

회’, 최고의 소프라노로꼽히는 안나 네트레브코의 ‘라 보엠’, 영화배우로 유명한 안소니 톱킨스가 작곡한 ‘그리고 알츠는 계속된다’ 한국에 ‘엘 시스테마’ 열풍을 일으킨 키스터프 두다발과 시몬 볼리바로 오케스트라의 트렌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8번째 특강에는 최현만 미래세부회장이 강사로 나선다.

〈관련기사 18면〉

/김미은기자 mekim@jeans@

/사진=김진수기자 jeans@

광주업체 할리우드 진출 발판 마련

강운태 시장, 美 LA서 2890만달러 영화콘텐츠 수주

강운태 광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 통상진흥단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2890만달러 규모의 영화콘텐츠 물량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 통상진흥단은 7일(이하 현지시간) 할리우드 영화제작사인 ‘아크라이트 필름스’로부터 2014년까지 2850만달러 규모의 문화콘텐츠 물량을 공급받기로 협약서를 체결했다.

아크라이트 필름스는 오는 2014년까지 3D컨버팅 등 2850만달러 규모의 물량을 광주시에 제공하기로 확약서를 체결하고, 1단계로 올해 광주업체인 쥬이엠아이지에 ‘Heart of darkness’ 등 3편(850만달러 규모)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일에는 세계적인 타이틀 시퀀스는 영화 도입부에서 영화의 제목과 배우, 제작진의 크레딧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프롤로그 필름스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광주에 자체 스튜디오와 영상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프롤로그 필름스는 세계적인 영화 판매회사로서 2004년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인 ‘크래쉬’와 2007년 골든글로브상 최우수 작품상에 오른 ‘비비’를 포함해 150개 이상의 영화를 판매해왔다.

타이틀 시퀀스 전문 제작회사인 프롤로그 필름스는 VFX(특수시각 효과)와 CGI(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작업기술을 가진 광주 CGI센터 입주업체에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타

이를 시퀀스는 영상 도입부에서 영화의 제목과 배우, 제작진의 크레딧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프롤로그 필름스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광주에 자체 스튜디오와 영상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프롤로그 필름스는 1995년 개봉한 ‘세븐’이라는 영화를 통해 타이틀 시퀀스 디자인 분야의 제왕이란 칭호를 받고 있는 카일 쿠퍼가 대표를 맡고 있다.

카일 쿠퍼는 2012년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최고 기술상을 수상했고 2013년 아카데미 시상식 디자인 총감독과 슈퍼볼 디자인 감독을 역임했다. 그

는 특히 ‘스파이더맨’, ‘미션 임파서블’, ‘인크레이더블 헐크’, ‘데스티네이션’ 등 할리우드 유명 영화의 타이틀 시퀀스 작업을 했다.

지난 3월 광주 CGI센터를 방문하기도 한 카일 쿠퍼는 “CGI센터 등을 둘러본 결과 만족할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같은 시 통상진흥단의 잇따른 확

약서 체결은 광주지역 영상관련 업체들이 할리우드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확약서(LOC)는 통상적인 협약서(MOU)와 다르게 사실상 계약에 준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시 통상진흥단은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6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프롤로그 필름스사 카일 쿠퍼 대표(사진 오른쪽)와 문화콘텐츠 물량공급 협약을 하고 있다.

는 특히 ‘스파이더맨’, ‘미션 임파서블’, ‘인크레이더블 헐크’, ‘데스티네이션’ 등 할리우드 유명 영화의 타이틀 시퀀스 작업을 했다.

지난 3월 광주 CGI센터를 방문하기도 한 카일 쿠퍼는 “CGI센터 등을 둘러본 결과 만족할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같은 시 통상진흥단의 잇따른 확

약서 체결은 광주지역 영상관련 업체들이 할리우드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확약서(LOC)는 통상적인 협약서(MOU)와 다르게 사실상 계약에 준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시 통상진흥단은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규직 사원모집

당사는 광주 삼성전자(주) 중, 대형 금형 수정/제작 전문 1차 협력업체로서, 2013년 물량증가 및 사세확장으로 인한 (광주 첨단2단지 내) 현지 공장 신설로 인하여, 참신하며 책임감 있으며, 근면 성실한 정규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인원	자격 요건
금형 사상 (조립분해)	00명	- 초보 기능 / 관련 직종 경력자 우대 - 사출금형(중/대형) 유경험자 우대 - 학력 : 무관
CNC M/C	00명	- 나이 : 21~45세 이하(군필 및 이에 준하는 신분)
CNC 방전	0명	- 관련부문 자격증 소지자 우대
와이어컷팅	0명	- UG 프로그램 사용자 우대(CAD/CAM)
사 출	0명	-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3차원 측정	0명	- 신당 / 청소 : 나이제한 없음 - 사내식당 유경험자 - 사내청소 경험우대/초보기능
식당/정 청소	0명	

- 근무지 : 광주 첨단2단지 내
- 기간 : 충원시 까지
- 급여 : 면접후 결정
- 구비서류 : 1) 이력서 1통
2) 사진 2매
3) 주민등록본 1통
4) 건강진단서 1통
5)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복지혜택

- 4대보험, 상여금(300%), 퇴직금, 기숙사, 근속수당, 성과제 인센티브
- 사내식당(조, 중, 석, 야식제공), 생일축하금, 명절선물, 월회식비지급
- 연/월차,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

전형방법

- 전화 후 회사방문(매주 목, 금요일 14시 정기 면접) / 구비서류 지참
- FAX 및 E-mail 접수가능(yoodll@naver.com)

(주) 신 흥 정 밀

TEL. 054-473-6697 FAX. 054-473-6698 HP. 010-6309-2488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당일 대출!

- ▶ 건물/상가 추가대출
- ▶ 아파트/주택 추가대출
- ▶ 전. 담. 나대지
- ▶ 공유지분/미준공건물
- ▶ 부동산 취득잔금
- ▶ 사업자금

※ 자사대출/ 자유상환/ 수수료없음
최저 월1%~월3% 최고 연39%!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힐 116호

062)228-0114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제성분 분석기 도입, 제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저방분해 시술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

대한생명 ● 구. 한미쇼핑 ● 동부소방서 ●

주차장 입구 ● 고객 주차장 ●